

5[18-6-12]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갑: 다수에게 순응하기보다 그들에게 온 힘을 다해 맞설 때 소수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을 갖게 된다. 양심이 아니라 다수가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정부는 정의에 입각한 정부라고 할 수 없다.

을: 시민 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법에 대한 불복종을 표현한다. 법에 대한 충실성은 양심적이고 진지하며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불복종의 의도를 보여 준다.

— <보기> —

- ㄱ. 갑: 정의로운 정부에서는 소수의 권력자가 다수의 시민을 지배한다.
- ㄴ. 을: 시민 불복종은 국가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위법 행위이다.
- ㄷ. 을: 모든 시민은 언제나 다수가 결정한 법을 충실히 준수해야 한다.
- ㄹ. 갑, 을: 시민 불복종은 신중하고 양심적인 신념의 표현이어야 한다.

6[18-6-13] 다음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예술 작품에 대한 기술적 복제는 수공적인 복제보다 더 큰 독자성을 지니며, 예술 작품의 존속에 아무런 손상도 입히지 않는다. 예술 작품의 기술적 복제 가능성의 시대에서 예술 작품의 '아우라'는 위축된다. 그러나 사진이나 영화와 같은 영역에서 대량 복제 기술은 대중들로 하여금 개별적 상황 속에서 복제품을 쉽게 접하게 한다. 이러한 현상은 전시 가능성을 중시하는 대중 예술이 기존의 제의(祭儀) 의식에 바탕을 둔 예술을 밀어내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제 예술 작품은 새로운 기능을 지닌 형상물이 된다.

- ① 대중 예술은 원작이 가지고 있는 유일성의 가치를 높여 준다.
- ② 대중 예술은 표준화된 생산을 통해 미적 체험을 제공한다.
- ③ 대중 예술의 복제 기술은 예술 작품의 신비감을 축소시킨다.
- ④ 대중 예술의 복제 기술은 대중과 예술 작품의 거리를 좁힌다.
- ⑤ 대중 예술에서는 예술의 숭배 가치가 줄고 전시 가치가 늘어난다.

7[18-6-17]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전쟁이 끝난 후 잠시 평화가 찾아와도 국가들은 더욱 강화된 재무장과 적대 정책을 세운다. 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 국가 간의 항구적인 평화 조약이 요구된다.

을: 전쟁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여러 수단 중 하나이며, 다른 수단에 의한 정책의 연속일 뿐이다. 불가능한 평화를 얻으려고 지금 얻을 수 있는 승리를 놓치는 것은 어리석다.

병: 전쟁은 찬양되어서는 안 되지만, 도덕적 제약을 전제로 최고의 합법적 권위에 의해 선포되는 경우와 나를 지키기 위해 적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

- ① 갑: 항구적 평화는 국가 간의 세력 균형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 ② 을: 전쟁은 항구적 평화를 이루기 위한 최후의 정치적 수단이다.
- ③ 병: 자국의 방어를 위한 불가피한 전쟁은 도덕적으로 허용된다.
- ④ 갑, 을: 전쟁은 인간의 생명과 자유권을 보장할 때 정의롭다.
- ⑤ 을, 병: 전쟁은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이다.

8[18-6-19]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갑: 범죄에 대한 형벌은 오직 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이러한 권한은 사회계약으로부터 나온다. 형벌은 강도보다 지속성을 중시해야 한다. 사형은 한 시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기 때문에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을: 범죄에 대한 형벌은 사회의 최대 행복을 저해하는 경향에 비례하여 가해져야 한다. 형벌의 목적은 범죄의 예방과 일반인에 대한 경고에 있다. 사형은 그 범죄자가 살아 있는 것이 나라 전체를 중대한 위협에 처하게 할 경우에만 적합한 형벌이다.

— <보기> —

- ㄱ. 갑: 범죄 억제력 측면에서 사형보다 우월한 형벌이 존재한다.
- ㄴ. 을: 사형 그 자체는 악이지만 동해보복을 위한 필요악이다.
- ㄷ. 을: 형벌이 초래할 해악이 예방할 해악보다 커서는 안 된다.
- ㄹ. 갑, 을: 형벌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 집행되어야 한다.

9[18-9-1]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윤리학의 근본 과제가 좋은 삶이란 무엇이고 그것을 구체적인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라고 본다. 도덕적 삶에서 중요한 것은 유덕한 품성을 갖추는 것이다. 따라서 윤리학은 덕을 함양한 사람의 도덕적 판단과 실천에 주목해야 한다. 그런데 의무론이나 공리주의와 같은 윤리학 이론들은 보편적인 도덕 규칙이나 원리만을 강조하여 도덕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나는 이러한 윤리학 이론들이 ㉠ 고 생각한다.

- ① 도덕 행위자 내면의 도덕성과 인성이 중요함을 간과하였다
- ② 도덕 판단의 기준이 되는 도덕 원리가 중요함을 간과하였다
- ③ 도덕적 실천을 위해 맥락적 사과의 배제가 중요함을 간과하였다
- ④ 도덕적 관행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것이 중요함을 간과하였다
- ⑤ 도덕 언어의 의미를 명료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함을 간과하였다

10[18-9-7] (가) 사상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어진[仁] 사람만이 능히 사람을 좋아하고 미워할 수 있으며, 자신이 서고자 할 때 남도 서게 해 주고 자신이 목적을 이루고자 할 때 남도 이루게 해 준다. 따라서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아야 한다[恕].
(나)	㉠ 은/는 나와 더불어 한몸과 같은 존재이며, 사람의 손과 발처럼 서로 아끼고 도와주는 관계이다[手足之義]. 상대방이 좋지 못한 행실을 하면 마땅히 정성을 다해 충고해서 올바른 도리를 깨닫도록 해야 한다.

- ① 서로 간에 자애(慈愛)와 효도를 실천해야 하는 관계이다.
- ② 계약을 바탕으로 서로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적 관계이다.
- ③ 동기간(同氣間)으로서 사랑과 공경을 실천해야 하는 관계이다.
- ④ 가깝게 오래 사귀어 벗으로서 우정을 중시하는 선택적 관계이다.
- ⑤ 삶의 동반자인 배우자로서 서로 정조를 지켜야 하는 관계이다.

11[18-9-9] (가)의 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가)	<p>갑: 동물을 이용하는 것이 자연법을 거스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인간이 동물의 고통에 동정심을 느낀다면 인간에게는 더 많은 동정심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의 뜻이다.</p> <p>을: 모든 생명체는 내재적 가치를 지니며 자기 보존을 위해 자신의 고유한 방식으로 각자의 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동등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p> <p>병: 생명 공동체의 범위를 대지까지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경제적 관점뿐만 아니라 윤리적·심미적 관점으로도 살펴봐야 한다.</p>
(나)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font-size: small;"> 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을 탐구한다.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font-size: x-small;"> <범례> □ : 출발 조건 ◇ : 판단 내용 → : 판단 방향 ○ : 사상가의 입장 </div> </div>

<보기>

ㄱ. A: 인간은 다른 동물을 단지 수단으로만 취급해도 되는가?
 ㄴ. B: 생명 없는 개체의 도덕적 가치를 존중하는 것은 불필요한가?
 ㄷ. C: 생명 공동체 자체가 지닌 고유의 선을 고려해야 하는가?
 ㄹ. D: 토양이 아닌 물[水]은 도덕 공동체의 범위에서 제외되는가?

12[18-9-11]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가)	<p>갑: 정의는 본성상 정치적 동물인 사람들 사이에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분배할 것을 요구한다.</p> <p>을: 정의는 도덕과 입법의 원리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 유용성을 극대화할 것을 요구한다.</p> <p>병: 정의는 최소 수혜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절차적 공정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p>
(나)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font-size: small;"> <범례> A: 갑만의 입장 B: 을만의 입장 C: 병만의 입장 D: 갑, 을, 병의 공통 입장 </div> </div>

<보기>

ㄱ. A: 분배 정의는 기하학적 비례의 동등함을 추구하는 것이다.
 ㄴ. B: 분배의 옳고 그름은 쾌락과 고통의 총합에 의해 결정된다.
 ㄷ. C: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 분배는 정의롭지 않다.
 ㄹ. D: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해도 분배 정의는 실현 가능하다.

13[18-9-17] 갑, 을 사상가들 모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법은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는 일반 의지를 반영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쓸 권리를 갖습니다. 사회 계약을 파괴한 살인범은 도덕적 인격이 아닌 공중의 적으로 사형에 처해져야 합니다.

법은 특수 의사의 총합인 일반 의사를 대표합니다. 인간은 자신을 죽일 권리가 없는 이상, 그 권리를 사회에 양도할 수 없습니다. 사형은 한 시민의 존재를 파괴하는 부적절한 전쟁 행위이므로 종신 노역형으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 ① 형벌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지향해야 하는가?
- ② 살인범에 대한 사형 선고에 동의하는 것은 정당한가?
- ③ 사형은 종신 노역형에 비해 범죄 억제력이 열등한가?
- ④ 사형은 사회 계약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형벌인가?
- ⑤ 사형은 살인범의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는 형벌인가?

14[18-수능-9] (가)의 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p>갑: 분배적 정의는 가령 사람 a와 b가 각각 물건 c와 d를 얻기 전과 후의 비율이 동등할 때 성립한다는 점에서 기하학적 비례를 추구하는 것이다.</p> <p>을: 분배적 정의의 핵심 과제는 사회 체제의 선택이다. 사회 체제는 특수한 상황의 유연성을 처리하기 위해 순수 절차적 정의의 관념에 따라 기획되어야 한다.</p> <p>병: 분배적 정의는 중립적인 개념이 아니다. 중립적인 개념은 '개인의 소유물'이다. 모든 개인이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 소유 권리를 갖는 것이 정의이다.</p>
(나)	<div style="text-align: center;"> <p>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을 탐구한다.</p> </div>

- <보기>
- ㄱ. A: 분배적 정의만이 비례를 추구하는 특수적 정의인가?
 - ㄴ. B: 경제적 불평등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어야 정당한가?
 - ㄷ. C: 원초적 입장에서 개인은 모두의 이익에 관심을 갖는가?
 - ㄹ. D: 개인의 자연적 재능을 공동의 소유물로 여기는 것은 부당한가?

15[18-9-18]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풍요로운 사회의 부유한 사람들은 빈곤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 소득의 일부를 기부해야 한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여 전 지구적인 의무를 공정하게 분담하는 것이다.

을: 질서 정연한 만민은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을 겪는 사회를 원조해야 한다. 이것은 고통을 겪는 사회가 자신의 문제를 합당하게 관리할 수 있게 도와서 그 사회가 질서 정연한 만민 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 ① 갑: 원조 대상자들의 국적은 도덕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 ② 갑: 원조는 인류의 고통 감소와 쾌락 증진을 위한 것이다.
- ③ 을: 원조는 일정한 목표를 넘어서면 중단될 필요가 있다.
- ④ 을: 원조를 통해 만민의 복지 수준을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
- ⑤ 갑, 을: 원조는 빈곤한 모든 나라를 도와야 할 도덕적 의무이다.

16[18-수능-11]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가)	<p>갑: 어떤 존재의 고통을 고려하지 않는 도덕적 논증은 있을 수 없다. 이익 평등 고려의 원리는 존재들 간의 동일한 고통을 동일하게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p> <p>을: 생명체가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는 것은 그 활동이 목표 지향적이라는 뜻으로, 생명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항상적인 경향성이 있다는 말이다.</p> <p>병: 인류는 대지 공동체의 평범한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류의 역할은 동료 구성원과 대지 공동체 자체에 대한 존중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p>
(나)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 <보기>
- ㄱ. A: 평등의 원리에 따라 인간과 모든 동물을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
 - ㄴ. B: 인간은 생명체에 끼친 해악에 대한 보상적 정의의 의무를 지닌다.
 - ㄷ. C: 개체주의적 관점을 지양하고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 ㄹ. D: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은 도덕적 고려 대상에 속한다.

17[18-수능-14 변형] 다음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우리에게는 악의 인식이 선의 인식보다 무한히 쉽다. 선은 눈에 띄지 않게 존재하며 반성을 하지 않으면 인식될 수 없지만, 악의 현존은 우리에게 인식을 강요한다.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가를 알아내기 위해 새로운 윤리학은 공포를 논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인간 행위의 새로운 유형에 적합하고 새로운 유형의 행위 주체를 지향하는 명법은 다음과 같다. “너의 행위의 효과가 지상에서의 진정한 인간적 삶의 지속과 조화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보기>

- ㄱ. 자연이 수용할 수 있는 한에서 과학 기술의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 ㄴ. 새로운 윤리학은 최고악에 대한 공포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 ㄷ. 새로운 윤리학은 “A이면 B하라.”라는 형식의 명법만을 지향한다.
- ㄹ. 사후적 책임뿐만 아니라 사전적 책임도 증시해야 한다.

18[18-수능-18]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에 최대의 이익이 산출될 수 있는 곳에 사용되는 것이 적절하다. 풍요한 사회의 시민들만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은 부당하다. 인류 전체의 이익 증진을 위해 절대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회의 사람들을 원조해야 한다.
 을: 자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될 수 없는 경우는 거의 없다. 어떤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는 결정적 요인은 자원의 수준보다는 정치 문화이다.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가 정치 문화를 바꾸도록 원조해야 한다.

- ① 갑: 원조를 위해서 풍요한 사회의 자원을 활용해서는 안 된다.
- ② 갑: 풍요한 사회의 시민들은 원조 대상에서 모두 제외되어야 한다.
- ③ 을: 자원이 부족한 국가만을 원조 대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 ④ 을: 정의의 제2원칙에 따라 국가 간 자원을 재분배해야 한다.
- ⑤ 갑, 을: 공리의 원리를 국제적 차원으로 확대 적용해서는 안 된다.

19[18-수능-19]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동물 실험은 꼭 필요합니다. 인간과 동물은 생물학적으로 유사하며, 동물 실험의 확실한 대안은 없습니다. 따라서 동물 실험은 정당합니다.
 을: 저는 당신이 제시한 논증의 모든 전제에 대해 찬성하지만 결론에는 반대합니다. 논증에 등장하는 ‘동물’을 모두 ‘인간’으로 바꿔 보세요. 당신이 제시한 논증을 이용하면 인간 실험마저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갑: 인간 실험은 부당합니다. 하지만 인간과 달리 동물은 기본적인 권리를 갖지 않습니다. 당신의 비판은 동물도 기본적인 권리를 갖는다는 선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을: 인간은 물론 동물도 삶의 주체이므로 기본적인 권리를 갖습니다. 인간 실험과 마찬가지로 동물 실험도 부당합니다. 당신이야말로 동물의 기본적인 권리를 단적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 ① 동물 실험은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필요한가?
- ② 동물 실험의 대안 중 확실한 것이 존재하는가?
- ③ 인간과 달리 동물은 기본적인 권리를 갖는가?
- ④ 인간 실험과 달리 동물 실험은 정당한가?
- ⑤ 인간과 동물은 생물학적으로 유사한가?

20[18-수능-20] 갑, 을 중 적어도 한 사람이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갑: 인권은 개인이 국가나 타인으로부터 간섭이나 침해받지 않을 권리와 정치에 참여할 평등한 기회를 가질 권리로 국한되어야 한다. 국가가 사회적·경제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부당하다.
 을: 인권은 인간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며 살 권리이다. 인권을 소극적 권리로 한정해서는 사회적 약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없다. 국가는 구성원 모두의 인권 보장을 위해 사회적·경제적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

— <보기> —

- ㄱ. 인권은 자유권과 참정권으로 국한되어야 하는가?
- ㄴ. 인권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인가?
- ㄷ. 인권은 자유권과 함께 복지권을 포함하는 권리인가?
- ㄹ. 인권은 사회적·경제적 평등의 실현을 통해 보장되어야 하는가?

18학년도 20제 답

- 1 4
- 2 5
- 3 4
- 4 나, 다
- 5 나, 큰
- 6 1
- 7 3
- 8 가, 다, 큰
- 9 1
- 10 3
- 11 가, 나
- 12 가, 나, 큰
- 13 5
- 14 나, 큰
- 15 5
- 16 나, 다
- 17 가, 나, 큰
- 18 3
- 19 4
- 20 가, 다, 큰